

 국토교통부		보 도 자 료	
		배포일시	2017. 11. 1.(수) / 총 4매(본문3)
담당 부서	첨단자동차 기술과	담당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과장 이재평, 사무관 이기림, 주무관 최문갑 • ☎ (044) 201-3852, 3849
보 도 일 시		2017년 11월 2일(목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1. 1.(수) 11:00 이후 보도 가능	

자율주행차, “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핵심 산업” 내외 석학·전문가 300명 한 자리에…국제 콘퍼런스 열려

- 자율주행차가 일상으로 들어오면서 발생할 수 있는 정책·사회 변화상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.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11월 2일(목) 「자율주행차 융·복합 미래포럼 국제 콘퍼런스」를 개최한다.
- 자율주행차 융·복합 미래포럼은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필요한 법령·인프라, 사회적 이슈, 수용성 제고방안 등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의 견해를 수렴하는 자율주행차 관련 민·관·학·연 협의체이다.
 - * 정부부처 및 60여 개 기관의 107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'16. 6. 발족
- 이번 국제 콘퍼런스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의 한 분야인 자율차부터 유관분야로의 파급효과까지 광범위한 주제가 다루어질 예정이다. 연사들은 한·미·EU와 국제기구의 전·현직 정책 담당자, 기술개발·연구자 등 각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된다.
- 기조연설에서는 자율주행 시대의 산업·정책적 변화상에 대해 논의한다.

- 첫 번째 기조연설자인 진대제 前 정보통신부 장관은 제4차 산업 혁명에 따른 패러다임 전환과 자율차의 역할에 대해 조망한다.
 - 두 번째 기조연설에서는 UN 유럽경제위원회(UNECE)에서 교통 부문을 총괄했던 에바 몰나(Eva Molnar) 前 교통실장이 자율차 도입으로 인한 정책구조 및 정책기관의 변화에 대해 논의한다.
- 첫 번째 세션에서는 각 분야의 정책적 경험을 가진 연사들이 모여 자율주행차 국내·외 정책 동향과 방향성을 점검한다.
- 美 도로교통안전청(NHTSA)에서 자동차 안전 관련 연구개발(R&D)을 담당했던 조셉 카니안드라(Joseph Kanianthra) 前 국장은 자동차 안전에 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완전 자율주행차 도입 이전의 과도기 상황에서의 정책방향에 대해 이야기한다.
 - 여러 국가로 연결된 유럽의 경우 ‘연결성’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EU 위성항법청 알베르토 위텐바흐(Alberto Wyssenbach) 시장혁신담당관은 유럽에서 계획 중인 정밀지도, 정밀GPS, 커넥티드 자율차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.
 - 이재평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기술과장은 자율주행차의 안전성을 담보하면서도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국토부의 지원정책을 개괄하고 향후 지원계획을 공유한다.
- 두 번째 세션에서는 자율주행차 출시 전망을 시작으로 자율차의 등장에 따른 일자리, 보험 등 국민생활의 변화상에 대해 다양한 전문가들이 의견을 교환한다.
- 자율주행 레벨3 수준의 차량을 내년에 출시할 계획을 발표한 아우디에서는 미르코 리히터(Mirko Reuter) 자율주행분야 이사가

아우디의 자율주행차 개발 계획과 전망에 대해 이야기한다.

- 이나 에버트(Ina Ebert) 독일 뮌헨 레(독일손해보험회사, 영문 표기) 및 쾰 대학 교수는 자율주행차 도입에 따른 현행 독일 법령 및 보험제도 개편방안에 대해 발표한다. 보험연구원의 황현아 변호사는 자율주행 사고와 관련된 한국의 손해배상책임을 점검한다.

- 국토교통부 맹성규 제2차관은 “이번 콘퍼런스가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를 위한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미래상이 공유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”면서 “국토부는 자율차 조기 상용화를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”이라고 밝혔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기술과 이기림 사무관(☎ 044-201-3852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

자율주행차 융·복합 미래포럼 국제 콘퍼런스 행사 일정

시 간	일 정	내 용	비 고
10:00~10:30(30)	등 록		
10:30~10:40(10)	축 사	제2차관님, 이원욱 의원	
10:40~11:00(20)	기념촬영 및 장내정리		
11:00~11:30(30)	기조연설 1	4차 산업혁명에 따른 패러다임 전환과 자율주행차의 역할	진대제 (前 정보통신부 장관)
11:30~12:00(30)	기조연설 2	세계 자율주행 기술개발 동향과 미래 사회 영향	E. Molnar (前 UN유럽경제 위원회 교통실장)
12:00~13:30(90)	점 심		
< Session 1 >			
13:30~13:50(20)	발 표 1	종합안전 측면에서의 기술과 자율주행의 미래	J. Kianianthra (前 美교통안전청 국장)
13:50~14:10(20)	발 표 2	EU 내 자율차 공동 개발 및 운영 방안	Alberto Wyttenbach (EU 위성항법청 시장혁신담당관)
14:10~14:30(20)	발 표 3	한국 정부의 자율차 정책	이재평 (국토교통부 과장)
14:30~15:00(30)	패널토론(Q&A)	발표자 등	윤영한 교수(좌장)
15:00~15:30(30)	Coffee Break		
< Session 2 >			
15:30~16:00(30)	발 표 4	아우디의 자율주행 기술	Mirko Reuter (Audi 자율차 담당이사)
16:00~16:20(20)	발 표 5	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따른 고용 현황과 일자리 전망	이항구 (산업연구원)
16:20~16:40(20)	발 표 6	독일에서의 자율주행자동차 법체계	Ina Ebert (獨길대학 교수)
16:40~17:00(20)	발 표 7	자율주행자동차 교통사고와 손해배상책임	황현아 (변호사, 보험연구원)
17:00~	폐 회		